

2025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5.27.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6	1	15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5	-	-	9	-	9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9	-	-	9

다. 전월(4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편성	<라디오 개편 관련> 손에 잡히는 경제가 라디오 개편으로 불방이 되는데 다음 개편 때는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기 바람	건강프로그램인 <3830상담실>을 개편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 해당시간대로 옮겼는데 바로 변경할 수는 없고 6개월 정도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5. 5월 조치>	'25.4월
보도	<성심당 컴플레인 제보 관련> 성심당 컴플레인 제보 보도를 봤는데 성심당이 소비자한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궁금했음	성심당에 냉장유통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을 지적했고 그걸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취재한 것임. 성심당을 옹호하는 것같이 많았음 <25. 4월 조치>	'25.4월
보도	<대선 공약 관련> 지역 공약들이 대선 때마다 계속 재당되는 느낌인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와 잘 해결된 공약들과의 비교 분석도 해주었으면 함	대선 관련 자체단체 공약들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빨리 실행시켜야 되는지 축약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음 <25. 5월 조치>	'25.4월
보도	<조리원 파업 관련> 힘든 노동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처우에 대한 불만도 있어 보이는데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갈등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길 바람	급식 조리원 문제는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로 근로 조건 개선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주체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심층적으로 보도할 예정임 <25. 5월 조치>	'25.4월
교양	<문화나들이 코너 관련> 문화나들이 코너가 무겁고 시청자들에게 예술이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좀 더 밝게 다루주었으면 함	문화나들이 코너가 다른 아이템에 비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더 쉽고 밝은 분위기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음 <25. 5월 조치>	'25.4월
교양	<문화예술 관련 토론 주제 선정> 시시각각에서 영시축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를 주제로 토론을 해주고 이슈화 해주었으면 함	영시축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 논란이 많기 때문에 팩트 체크 개념으로 분석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려 함. <25. 5월 조치>	'25.4월
교양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창사60주년에 큰 이슈를 던졌던 다큐멘터리의 하위 범주 이슈들로 경쟁력 있는 다큐멘터리를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음	올해는 <애들은 가라 1호점>, <오지랴 보 건실>, <한국의 돌레길>등 정부에서 지원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지역생존 프로젝트로 시프로젝트로 바뀌어서 TV와 라디오로 제작할 예정임 <25. 5월 조치>	'25.4월
기타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방송사 영상 콘텐츠나 뉴스를 외부에서 시청자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함	영상 파일화 작업 이후의 일이라서 현재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서버 구축비용과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25. 5월 조치>	'25.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5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김 욱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총보팀장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엔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라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 신임위원 위촉 : 김욱, 백강희, 문선혜, 박은숙, 이현욱, 최승인, 조원희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용어 사용 관련> 공약에 대한 '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설계대로 이행되는지 검사하고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평가'와 '진단'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누누TV 노출 관련> 불법 OTT 사이트 판결 보도에서 '누누TV'를 노출했는데,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다른 어둠의 경로를 알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출시켜야 했는지 아쉬움	회의록 첨부	○		
보도	<신에너지 빈곤층 관련> 에너지 빈곤층이 예전에는 겨울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여름나기가 쉽지 않음. 대책 마련과 관심 유도를 위해 날이 더워지기 전에 6월부터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김하늘 양 관련 보도> 교사들이 CCTV 설치 반대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학부모, 학생, 시민들의 의견도 균형있게 다뤄졌으면 좋겠고, 다른 대체 가능한 안전 확보 방안은 없는지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주제 선정과 토론 방식> 시시각각에서 형식적인 토론이 아닌 실질적인 토론을 기대하고, 향후 아동 및 청소년 문제, 문화적, 환경 사회적 분야까지 소외된 이슈까지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테마기행 길 지역 소재> 업로드 된 콘텐츠에 비해 대전 충청 지역을 다룬 부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음. 더 많이 다뤄질 수 있기를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정책 토론 구성> 토론 프로그램답게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과 비난보다는 정책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뤄지고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아 구성해 주길 제안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선거 후 공약 이행 검토> 선거가 끝나면 선거 공약이 잘 이뤄지는지 또 낙선자들의 좋은 공약 부분도 검토해서 실익을 찾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인생나잇 내용 관련> 양용업자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성공한 이야기가 아닌 기후 환경과 치유 농업까지 다루었는데 미래 세대를 살아야 하는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함	회의록 첨부	○		

2025년 5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5월 27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김옥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문선혜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옥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5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에 앞서 지난 4월에 임기만료가 되신 위원장님이 계셔서 새로운 위원장님을 선출해야 하는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위원장님을 선출해 주시고 선출된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 등 전반적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고요. 부위원장님은 위원장님 공석시 대리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후보를 먼저 추천해 주시면 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서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추천이 어려우실 텐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륜이나 경륜을 고려해볼 때 김옥 배재대학교 총장님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박수로 찬성) 네 신임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님을 선정해 주십시오.

김옥 위원장

가능하면 여성분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할까 하는데요. 모두 훌륭하셔서 고민되는데 제가 없을 때 대신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백강희 교수님이 강단에 많이 서시기 때문에 적격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강희 교수님을 부위원장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박수로 찬성)

이은표 경영국장

새롭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선출되었고요. 인사 말씀은 차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MBC 5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관련 불만이 2건, 편성 불

만 1건, 그리고 기타 제보나 문의가 2건 있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반갑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래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평일 오후에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촉장 수여 절차도 있었습니다. 일곱 분이나 새롭게 뵈게 돼서 더욱 더 반가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많이 어색 하시겠지만 저희 회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고견을 주시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의견들 기대하고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김옥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옥입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들과 방송국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방송국 임직원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는 아니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도 있어서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2분에서 3분 정도 대전MBC 뉴스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임하신 김미화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대선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시시각각>이나 뉴스에서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시각각>에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발언이나 질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할만한 것들을 잘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뉴스에서는 청양 지천댐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고 작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해결을 위한 조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해결 방향이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재완 관련해서도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정신 감정을 이미 했는데도 또 요구

한다는 내용들은 아마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분하고 억울해 할 것 같은데 그런 보도들을 계속 다뤄줘서 감사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스포츠 토크 코너를 진행하는 한주희 아나운서 목소리나 톤이 정말 잘 어울려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남유식, 박선진 아나운서도 MBC 본사처럼 투샷으로 스탠딩 진행을 하잖아요. 앵커 얼굴이 확대되면 사람들은 뉴스보다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데 스탠딩으로 진행하니까 뉴스에 더 집중하게 되고 생생하게 적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위촉식 사회를 보신 유지는 아나운서도 <오늘M>을 진행하면서 아침 뉴스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오늘M>은 토크 튀는 분위기로 스타일도 캐주얼하게 입으시고 완전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인생내컷>은 3~4개를 봤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도 역경을 잘 견뎌내신 분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분들인데요. 젊은 분부터 노인 분까지 다양하게 섭외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 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옛날 인생극장처럼 재미있게 봤습니다. 특히 이분들의 공통점인 선한 영향력을 모델링 해주셔서 훈훈하게 힐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역 서점 위기에 대해서 <시시각각>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미옥서원 외관이 굉장히 멋지게 돼 있더라고요. 시간대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변화하는 것도 보여주고 마지막에 서점이 잘 안 돼서 걱정하는 분들이 나올 때 그에 어울리게 음악을 연출해 주셨는데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멋진 서점 건물에서 지역사회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면서 자기 캐릭터나 개성에 맞게 서점을 운영하는 고민을 하는 책방지기님을 그려줘서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김옥 위원장
아주 꼼꼼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혜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선혜 위원
저는 <시시각각>에서 대선 후보들의 충청권 공약 관련한 내용들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 중앙 정치 이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 현안들이 다 묻히고 중앙 정치 이슈에만 매몰된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충청권 현안들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다루려는 시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언론으로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대선 때문에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예비 후

보자들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방선거에 대비한 후속 보도나 프로그램 기획이 있다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지방선거 공약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시기적으로 <시시각각>이나 토론 프로그램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시각각>을 흥미롭게 봤는데 아무래도 MBC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문제라든지 청년의 정치 참여, 또 언론 보도 문제까지 다양하게 다뤘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공약 이슈별로 심층적으로 담아내고자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다만 토론의 질문들이 다소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라 형식적인 토론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 문제를 다룰 때 청년들의 차별화된 정책들이나 제안들을 끄집어내는 부분들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방송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아동 및 청소년 문제, 문화적 또 환경 사회적 경제 분야까지 소외된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 이슈화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흥미롭게 보는 프로그램이 <테마기행 길>인데요. 네트워크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2017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제작돼서 377회 정도 업로드가 되어 있던데 대전 충청 지역들을 다룬 부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대전MBC에서 지역의 충청권의 보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제작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제목 형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정체성이나 감성을 담아내는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송에 비해서 MBC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박은숙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강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백강희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연임 위원님 중에서 받아 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새롭게 된 만큼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동의하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관심 갖고 시청했습니다. 특히 5월 22일에 방송됐던 대통령 후보 충청권 공약 검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굉장히 유용하고 많은 점을 배웠는데요.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고 계신 데 대해 제작진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모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의 의견을 첨언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토론 프로그램들이 정말 토론다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공격과 방어 위주로 이어지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정책 공약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방어와 타 정당의 관계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나 발언들로 토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제작진들께서 미리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토론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의문이지만 아무래도 지역 언론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컨대 토론 이전에 시청자 게시판이든 혹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할만한 정책 어젠다에 대해 질문을 받아보고 그 질문들로 구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대다수의 언론이 선거 이전에는 공약을 검증하거나 평가, 진단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해당 정책의 이행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 진단과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역 언론으로서 공약 중에 어떤 부분들이 이행되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MBC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언론들이 공약을 ‘검증’한다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검증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검증은 검사하고 증명한다는 뜻인데 증명할 수 있으려면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증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정책들이 실제 설계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사되고 증명되었을 때 검증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검증보다는 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 ‘진단’ 이런 단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옥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옥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위원

뉴스를 보면서 헤드라인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아침에 눈에 걸린 헤드라인이 불법 OTT에 대한 뉴스였어요. 거기에서 불법 OTT 사이트의 이름이 누누TV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걸 굳이 노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호기심에 따라서 대학생이나 제 친구들도 많이 보는 사이트이기도 했었고 비슷한 많은 유의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굳이 누누TV라고 알려져 호기심을 자극해서 또 다른 어둠의 경로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구요. 그냥 불법 OTT를 단속했고 몇 년 징역이 나왔다 하는 식으로 표현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승인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위원
<시시각각>에서 시사 관련 부분을 편성을 잘 하셔서 청년의 이야기라든지 정당의 이야기 그리고 충청권에 집중된 공약에 대해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선거를 앞두고 많은 프로그램이 편성되는데 이후에도 선거 공약이 이행되거나 아니면 낙선자들이 갖고 있었던 좋은 공약 부분도 한 번은 검토해 보고 우리 지역의 실익을 찾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청권은 행정수도와 과학 R&D, 메가시티라는 이슈가 있는데 꼭 당선된 당선자의 공약뿐만 아니라 낙선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거에 관련된 다양한 공약들도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18일에 방송된 <인생내컷>에서 꿀벌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보통 인생극장이라든지 6시내고향 프로그램들을 보면 청년들이 귀농 귀촌을 해서 얼마를 벌어서 매출액을 증대시켰고 성공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양봉업자인 청년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 안에서 기후 환경이라든지 왜 꿀벌이 중요한지 나아가서는 치유 농업까지도 다루고 있는데요. 농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굉장히 잘 풀어주셔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잘 봤습니다.

저는 아동복지 분야와 관련된 사회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권리 옹호라든지 권리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한테 기후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꿀벌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어떻게 미래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건 예전에는 사회복지 분야들은 보통 겨울나기가 힘들었는데 최근 몇

년부터는 여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주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한 7월, 8월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집중되면서 뉴스에서 쪽방촌이라든지 임대 단지 등을 다루는데 이미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6월부터는 방송이나 언론들이 그 부분을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최승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원희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원희 위원

저는 한 가지 기사를 보고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학교폭력방지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동, 청소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까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MBC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주로 뉴스를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위촉 제안을 받았을 당시에 가장 화두가 된 건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대전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결국 앞으로 사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월 2일자 뉴스투데이 보도에서 대전 교사 80% 이상이 학교 CCTV 설치 의무 반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교사들의 반대 여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학부모, 학생, 시민들의 목소리까지도 상대적으로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공분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CTV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들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인권 침해와 갈등 촉발의 이유였죠. 알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 학생의 안전권이라는 굉장히 큰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강조돼서 후속 보도라든가 심층 기획 의제로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찬반 보도라기보다도 정말 CCTV가 예방 효과가 있는지 혹은 다른 대체 가능한 안전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탐사 보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토론회 형식의 방송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타 지역이 아닌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사례이다 보니까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후속 보도에 대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김옥 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여섯 분의 의견을 다 들었고 저도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MBC뉴스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자주 보게 되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MBC가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자주 봤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걸 독립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언론 기관의 중립성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 중립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문사는 어느 정도 보수, 진보 색깔이 있지만 방송국이 색깔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시청자나 국민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해서 앞으로 그런 언론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의견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의견에 대한 대전MBC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시시각각>에 대한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뉴스에서 누누TV 노출 문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그리고 김하늘 양 CCTV 대안 문제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시각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반영을 하겠고요. 다양한 주제 선정과 토론 방식과 관련된 의견은 제작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검증이라는 단어 사용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평가와 진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전 전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나오시는데 치열할 것 같습니다. 선거 막판에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이 나오셔서 토론하실 건데 종합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지 않도록 진행하는 기자한테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후속적으로 공약의 이행 사항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겠고요. 일단 당선자의 공약이 어떻게 제대로 실현될지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다음 달 대전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늘 양 사건 같은 경우도 토론에서 다뤄볼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공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고가 나오면 또 다시 이슈화가 될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이 부분을 다뤄보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누TV 용어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굳이 그걸 써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간접 광고해 준 것 같고 또 새로운 불법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

쳐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동안 진짜 한참 더울 때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시는 분들만 다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뉴스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MBC에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봐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답변이 미흡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보도 시사 쪽에 많이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인생내컷>과 <테마기행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내컷> 미옥서원은 대전MBC가 제작한 콘텐츠였고요. 꿀벌 양봉 최고야 대표는 MBC충북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대전MBC와 MBC충북이 교대로 제작하고 있는데 최고야 대표 이야기가 웬지 대전이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대청호 쪽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종 대표는 서울 강남에서 논술 학원을 하셨던 분인데 개인적으로 한옥 박람회에서 가셨다가 한옥에 반해서 보령 오서산 쪽에 한옥을 짓고 그 위에 현대식 건물로 서점을 지어서 그 곳이 동네 사람들과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의 사랑방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개인의 관심과 노력으로 그 지역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의미 있게 시청을 했고요. 휴먼 다큐임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루다 보면 환경이나 문화예술의 문제까지도 넓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두 개 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숙 위원님께서 <테마기행 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을 자주 소개 하고 싶어도 14개 MBC가 순번이 있습니다. 더구나 대전MBC는 충남에 시군이 많아서 16개 시군중에서 한 시군이 돌아오려고 해도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최근에는 부여, 예산, 당진이 나갔고, 7월 여름에는 금산편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자주 못 다루는 우리 지역의 얘기는 <오늘M>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주희 아나운서 <스포츠 토크> 진행과 유지은 아나운서 진행에 대해 칭찬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해 주셨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특별히 없으시면 김옥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 주시고 진종재 사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오늘 처음 참석한 회의라서 어색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긴장되고 하실 텐데요. 사장님과 국실장님들이 여유 있게 대해주셔서 편안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재 사장

처음이라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고 그런데요. 하시다 보면 더 자유롭고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이나 회사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각계각층의 대표이시고 연령대도 비교적 폭이 넓어서 평소 일을 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방송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참고가 됩니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것으로 5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